

于湖 全海宗교수 退職記念論文集

책을 내면서

學德은 햇빛과 같아서 스스로 가리지 않는 흙 모두에 마친다. 또한 바다와도 같아서 같은 높이로 고르게 달는다. 누가 새삼 기려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끌어 내리려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쌓아가면 빛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다.

學德은 그저 歲月이 흘러 쌓이는 것이 아니다. 弘益人間의 넓은 뜻과 眞理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超人間的 執念과 그리고 刻苦의 勉勵가 있어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人間意志와 努力의 綜合表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부터 學問에 뜻을 둔 선비를 우러렀으며 큰 위치럼 치솟은 學德을 높이 쳐다 보아왔다.

于湖 全海宗교수는 韓國 東洋史學界에서 모두 우러러 보는 巨峰이다. 近代化의 물결속에서 19세기까지의 舊學問이 新學問으로 轉移하는 거센 물결을 헤치시며, 또한 나라가 植民時代, 被占領時代, 分斷時代를 겪는 거치른 風霜을 겪으시며, 오로지 學問의 외길을 걸어 그 술탄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경지에 이르시었다.

全교수는 우리나라의 삭막하던 東洋史學界에, 몸소 앞선 나라에 나가서서 익힌 새로운 學風을 일으켜 이 땅에 새로운 學問體系가 자리잡게 하는데 가장 큰 寄與를 하셨으며, 中國史를 통해 우리의 歷史的 位相을 가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韓中關係史에 새로운 場을 여셨다. 또한 1947년에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서울大學校와 西江大學校에서 後學養成에 진력하시어 우리 學界에 하나의 새로운 학문적 潮流를 이루어 놓기도 하셨다.

著書와 論文을 통하여 쌓아오신 學問體系는 이미 「于湖史學」이라 부를 수 있는 獨自의 영역을 이루었으며 수 많은 國內外學會에서의 활동으로 우리 史學에 대한 國際的 인식을 높이는 데도 크나큰 공헌을 쌓으셨다.

全海宗교수는 몇분 教授들과 뜻을 모아 1981年 10月 20日 西江大學校에 東亞研究所를 創設하시고 初代所長에 취임하시어 1984年 2月까지 직접 나서시어 오늘날의 이 研究所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다 잡아 놓으셨다. 無에서 시작한 이 研究所가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몇 10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다른 연구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于湖先生의 指導力量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全海宗교수의 停年退職의 해를 맞이하여 교수님의 學德을 기리고 또한 研究所員들의 尊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생각해본 끝에 오늘 이 論文集을 꾸며 贈呈하게 된 것이다. 後學들이 정성껏 쓴 論文을 모아 東亞研究所에서 「東亞研究」特輯號와 單行本 論文集으로 모양을 갖추어 세상에 퍼내게 된 이 책이 全教授의 높은 學德과 後學을 아끼는 넓은 뜻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의 表徵으로 될 수 있다면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책의 企劃에서부터 마지막 校正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李光麟교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또한 한여름 하루도 쉬지 않고 이책에 매달려 고생한 編輯助教 洪雲杓君과 金大熙君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한다.

全교수께서 天壽를 누리시고 계속 精進하시어서 學德이 四海를 덮는 경지에 이르시기를 모든 後學들은 함께 기원한다.

1985年 10月 1日

편집을 맡은 모든 이들의 뜻을 모아

所長 李 相 禹 씀